

정보 기술 벤처 정책

(주)신테크 신홍식*

1. 서 론

미국에서 벤처 기업에의 투자는 주로 정보 기술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히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정보 서비스 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사실 지난 해 미국에서 상장된 벤처 기업의 30% 이상이 인터넷 관련 기업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에서도 IMF 경제 위기 이후 국가의 경제 및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자 노력하면서 벤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 나라의 경제 구조는 소수 재벌이 팽창을 거듭하여 왔다. 이들 재벌 왕국은 사실상 무제한의 자금 조달 능력을 바탕으로 남이 하는 사업은 나도 한다는 식으로 결과적으로 창의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소 기업 규모의 사업 영역에도 수익성을 무시한채 뛰어들어 벤처 정신의 발전을 저해하여 왔다.

21세기는 인터넷과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식 정보 사회가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에서 살아 남기 위하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벤처 산업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벤처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면서 높은 위험을 무릅쓰고 높은 대가를 구하는 것(High Risk, High Return)이다. 이렇게 종자 돈을 뿌려 기르는 벤처 기업들이 큰 돈을 벌며 나가면 나라의 장래가 좋아질 수 밖에 없다. 반대로 나라에 돈을 제대로 버는 건전한 모델이 없으면 나라의 장래는 보나마나이다. 우리 나라 벤처 산업의 발전을 위해 물론 정책 입안자들을 포함하여 각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힘쓰

고 있는 것을 격려드린다. 이 글 또한 벤처 현실의 문제점과 원인을 잘 알아서 향후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업가로서 느끼는 업계 현실을 솔직하게 지적해보기로 한다.

2. 우리 나라 벤처 환경의 현실과 문제

몇 달전 실리콘 벨리에서 성공한 한인 교포 벤처 기업가 한 분이 우리 나라에 벤처 기업이 제대로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유리 시스템즈를 만들어 성공한 미국 교포 김종훈 회장도 제대로 된 우리 나라 투자자들의 부재를 한탄스러워 한 것이 보도되었다. 우리는 아마 충격적인 이런 말을 너무 들어서인지 별로 심각하게 듣는 것 같지 않다. 실제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벤처 기업을 특히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인터넷 분야에서 찾으려고 하면 거의 전무한 상태를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소위 벤처 기업을 해 본 사람이라면 벤처 기업이 왜 이렇게 존재하지 못하는 지를 아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벤처 기업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기술을 개발하려고 사업 초기에 종자 돈(Seed Money)을 찾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은 일년도 채 안된 벤처 기업이 빼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업 초기부터 매출실적을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벤처 기업들은 투자자들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매출을 올리는데 급급하여 단순 용역 업체로 전락한다. 또한 매출을 늘리기 위해 온갖 무리한 수단도 동원하게 된다. 그러니 벤처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예 투자가 유치를 포기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초창기에는 자기나 주변 가족 친지들의 자금을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렇게 자금 조달이 가능한 경우는 나쁜 것은 아니나 이러한 자기 자금이 없는 대부분의 경우 특히 사업 초기 벤처 자금을 조달하는 환경은 열악하다. 다행히 최근 엔젤 클럽들이 생겨나 초창기 벤처 기업에 대한 소규모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사실 초창기기를 벗어난 벤처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은 과거 1, 2년전에 비해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어 KOSDAQ 시장을 통해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가 가능해져 벤처 자금이 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벤처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현 정부의 최대의 가시적인 성과로 판단된다. 다만 KOSDAQ 시장의 일부 과열을 경계한다. 일부 투자자들이 적당한 매출이 있는 기업을 벤처로 포장하여 KOSDAQ에 등록하고 주식 값을 튀겨서 팔고 현금을 챙겨 빠지는 사례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되면 당하는 것은 무지몽매한 개인 투자자가 된다.

우리 나라 중소 벤처 기업 사장은 적어도 1인 6역을 하는 초능력 인간이라야 한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6가지 역할이란 다음을 말한다.

- 첫째, 기술 개발에 투자할 돈을 조달해야 한다.
- 둘째,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 셋째, 좋은 인력을 모아서 비전을 제시하여 동기 부여를 지속해야 한다.
- 넷째, 영업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
- 다섯째, 온갖 규제 속에 로비를 해야 한다.
- 여섯째, 한국적 현실에서 적당히 작전(?)을 하며 생존해야 한다.

어떻든 중소 기업체가 살아남기 위해 위와 같이 여섯 가지를 모두 하다 보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없어 진정한 벤처 기업이 출현하기가 어려워진다. 여기서 벤처를 위하는 해결 방향을 찾는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돈의 조달이 수월하고 시장 환경이 벤처를 하고 영업을 하기에 좋아야 한다. 정부는 벤처가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된다. 그러면 벤처 기업가는 좋은 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투자가는 종자 돈을 뿌리고 잘 가꾸어 큰 돈을 벌게 된다.

우리 나라도 벤처 기업 경영 상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사실 기술 있는 벤처 기업가가 기술 개발만 잘하기도 벅하다. 기술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것에만 몰두하여도 쉬운 일이 아니다. 벤처 기업가가 전문성으로 보아 기술의 전문가인 경우도 있고 사업 개발에 뛰어난 경우도 있다. 벤처 기업은 초창기 기술을 개발하여 시제품을 개발해내는 비용보다 상품화하고 마케팅하는 데 훨씬 더 큰 돈이 드는 것이 상례이다. 일단 초기 시제품이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사업의 전망이 보이던 후속 투자를 유치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3. 정부는 벤처 기업을 할 수 있는 국제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벤처 기업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의 마련은 필연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 우리 나라 벤처 기업의 생존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기존의 이러한 환경을 새로운 벤처 환경으로 바꾸어 주기 위하여는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꾀하여야 한다.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는 도소매, 서비스 업체 또는 통신 판매 업체 등으로 사업 허기를 받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상장된 벤처 기업의 약 30%가 인터넷 업체라 하였는데 반대로 우리 나라는 벤처 기업으로 분류되어 세제 혜택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국세청은 통신판매업체로 분류하여 중점 세무관리 대상이 된다고 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의하면 금년 6월말 현재 국내 인터넷 쇼핑몰 업체 821개사 중 82.3%가 5명 이하의 인력으로 운영하며 70.1%는 자본금 1억원 이하로 대부분 영세하다. 월 평균 운영 경비가 1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12.3%에 불과하고 전체 중 6.4%만 흑자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벤처를 선도해 나가는 전자상거래 사업이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미미하기 그지 없다.

사실상 자유로이 인터넷 거래를 하는 해외 선

진국과는 달리 우리 나라는 해당 산업 분야에 관련한 심각한 규제가 인터넷 분야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면서 인터넷 사업을 추진할 때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얼마전 모 일간지에 보도된 바 대로 해외에서는 잘 되는 인터넷 사업을 국내에서 추진하다 낭패를 보는 사례가 허다하다. 이것은 요즘 많은 사람이 새로운 인터넷 사업을 막상 해 보려다 겪는 좌절이다. 또한 장애 요소는 신용 카드의 비싼 수수료를 포함한 지불결제 수단의 문제 등 전자상거래 사업의 요소요소에 존재한다. 심지어 온갖 규제 때문에 해외로 나가서 인터넷 기업을 차리거나 현재 고려 중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4. 최대의 장애 요소인 규제를 극복하자

우리 정부의 규제는 국내에 있는 우리의 기업만 받게 된다. 해외 선진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개방된 나라에서 벤처 기업을 하는 경우와 우리나라와 같이 규제가 많은 나라에서 벤처 기업을 하는 경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사업체들이 기득권을 내세워 전문 벤처 기업의 진입을 방해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내 업계의 선진화를 저해하여 국가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결국 이렇게 되면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 상실을 가져와 국내 시장을 해외 선진 기업에 모두 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규제는 풀고 버리에 대한 감독은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 하루바삐 정착되어야 한다. 벤처 산업이 살아나려면 좋은 기업에게는 개방을 많이 해 주고 나쁜 기업에게는 규제가 가도록 지혜를 짜내야 한다. 그러나 자국민을 보호하는 해외의 국가와는 달리 국내 기업에게는 우선 규제가 가고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에게는 밀려서 개방을 하는 현실이 나타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자거래기본법에 규정한 바 대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명실공히 진입 장벽이 없는 자유로운 시장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세법을 포함한 각종 규제 관련 법률을 통폐합하여 글로벌 인터넷 사업 환경에 맞는 일관성 있는 포괄 법안을 신속히 도입하여야 한다.

5. 정부의 관료들이 너무 바쁘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명과 책임을 갖는다. 벤처 산업을 육성하는 가장 효율적인 정부의 정책은 벤처 기업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투명하고 건전하게 사업을 하는 지를 모니터링하면 된다. 정부의 관료가 쓸데 없는 일에 너무 바쁘다. 나라의 엘리트 관료들이 너무나 많은 사소한 일에 시간을 뺏기는 현실이 안타깝다. 지난 IMF 위기 때를 교훈 삼아 좀 더 국제적인 실력을 갖추고 보다 가치 있는 국가적인 차원의 일을 걱정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정부의 규제란 물론 기업을 신뢰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고 보지는 않지만 나쁜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의 규제가 심하면 오히려 좋은 기업이 진출하고 성장할 기회를 놓친다. 다만 원칙에 이탈하는 기업은 엄격하게 감독한다.

인터넷과 관련하여 정보통신 및 금융 산업의 진입 장벽을 하루바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현재 업종 간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좀 더 통합적인 인터넷 서비스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보다 통합적인 금융 지불 서비스의 도입을 위하여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우리는 은행, 증권, 카드, 보험 업종 간 각종 제약으로 결국은 신규 인터넷 사업의 추진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또 한 사례로 우리 나라 일부 보험 회사의 부실의 원인을 살펴보자. 우리 나라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아서 유사시 지불할 보험금의 적립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보험 회사의 부실은 보험회사 자본금의 규모가 작아서가 아니라 지불 준비금을 당연히 준비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데 있다. 우리 나라 보험회사 자본금은 300억 원이나 미국은 보험 업종에 따라 고작 10만불에서 90만불 사이이고 영국은 지불 준비금(Guarantee Fund)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부실은 이러한 원칙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도록 감독해야 하는 정부의 관리 소홀이 크다. 규제는 하루바삐 선진국 수준으로 풀고 감독은 엄격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그래야 전문적이고 선진적인 벤처가 산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정부에 의존하는 관변 단

체가 너무 많다. 협회나 학회가 진정한 모습의 업계의 대변자 구실을 하고 학회가 진정한 학문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정부 지원 없이 학회나 협회가 유지되기 어려운 현실도 있으나 해외 학술 대회에 우리 나라처럼 장관 모시기 경쟁을 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 또한 기업의 대표가 여러 개의 협회나 학회의 감투를 맡고 있는 현실도 보기에 좋지 않다. 특히 사업가들이 회사 일에 주력하지 않고 관청 주변을 맴도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돈이 없어 유지되기 어려운 모임은 본래의 모습대로 축소하거나 유사 모임과 통합하여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정부도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한 정부의 예산 지원을 미끼로 간섭을 해서도 안된다. 정부가 특정 업체나 기관의 이익을 지원해서는 안되며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벤처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발해야 발전하는 산업이다.

정부의 역할은 좋은 법 제도를 세우고 시행하는 사명을 갖는다. 정부의 기능은 공정한 룰을 세워 효율적으로 관리 감시하는 것이다. 정부의 관료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생리와는 거리가 멀어 정부가 나서서 사업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인터넷 분야처럼 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업체가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우리 나라 업체가 경쟁력을 갖추어야 소비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선택하는 자유가 주어진다.

6. 자유 벤처 지역을 만들도록 도와 줘야

미국의 Silicon Valley와 같이 벤처 산업이 자유롭게 형성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준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특정한 지역에 얽매이지 않는 개념적인 벤처 지구이다. 어디든지 그 개념에 적합하다면 몇 개라도 만들어 질 수 있다. 일단 개념만 그려지면 업계와 학계의 지혜를 모아 만들면 된다. 정부는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결과를 관리한다. 업체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성과를 낸다. 물론 정부도 최근 서초동, 포이동 등 강남 지역 등에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일부 정부 부처에 의해 매우 제한적으로 시

행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사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완전히 개방된 자유 무역 지대와 같은 환경이 조성되도록 보다 과감한 제안을 장려하여야 한다.

7. 영어 교육을 제대로

인터넷 세계에서 영어는 우리가 좋은 싫든 세계 공통 비즈니스 언어(Common Business Language)이다. 우리처럼 영어 교육을 오래 받고도 영어를 듣고 말하지 못하는 나라는 별로 없다. 우리가 인터넷 사업을 글로벌한 시장을 상대로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본다. 언어는 그 나라 문화와 같이 전달되어야 배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가면 빠른 기간 내에 회화가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언어 교육은 그 나라 사람이 시켜야 한다고 믿는다. 선생이 영어를 잘못하는데 학생이 잘 할 리가 없다. 영어 선생님을 미국인이나 영국인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어 우리의 자식들이 제발 우리와 같은 괴로움을 다시 겪도록 하지 말자.

8. 요약 및 결론

현재 우리 나라는 IMT 이후 경제 산업 구조 개편의 격동기에 있어 중소 벤처 기업을 토대로 한 산업 기반 구축에 대한 기대는 크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기대는 매우 크나 불행히도 이미 많은 부분에서 미국 등 선진국에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이미 발빠르게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한 결과로 보면 오히려 당연한 현실로 받아 들여야 한다. 이들 중 많은 주요 기업들이 국내에 이미 진출하여 시장을 선점하여 버렸다. 우리 나라 벤처 기업이 몇 개 살아 남지 못할 것이란 현실을 직시하고 겸허히 받아 들여야 우리가 생존할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대로 성공하는 벤처 기업이 나오려면 좋은 기술과 사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그리고 돈이 함께 시너지를 내어야 한다. 표 1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국내 벤처 산업 환경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요약한 것이다.

과거 IMF 이전에 비해 벤처 자금 조달 환경은 매우 좋아졌다. 초창기 벤처 투자를 위한 엔

표 1 국내 벤처 산업 환경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순위	긍정적 요소	부정적 요소
1	벤처 투자 지원 노력	정부 규제 간섭 너무 심하다
2	KOSDAQ 시장 활성화	인터넷 기업 관련 법제도 후진성
3	경제 산업 구조 개편 노력	투명성, 일관성, 계획성, 지속성 미흡
4	금융 구조 개편 노력	구조 개혁이 기득권에 의해 지지 부진
5	기업 구조	인론 전문성 떨어져, 선정 기준 없는 보도
6	벤처 기업 육성 노력	영어 교육 정책 개선 안됨
7	공공부문 개혁	부정 부패

젤 클럽의 증가도 꾸준하다. 그리고 현재 KOSDAQ 시장의 활성화로 기관 투자자들이 오히려 좋은 벤처 기업을 찾는 상황이어서 벤처 기업들에게는 벤처 자금을 얻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벤처 자금 조달 환경이 좋아져 좋은 벤처 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지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반면 규제는 벤처 기업의 활성화를 막는 최대의 걸림돌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개방과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벤처 기업 환경이 바뀌는 데는 진정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다.

첫째, 벤처 기업을 해 본 사업가를 벤처 정책을 입안하게 해야 한다. 규제가 벤처 환경 망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실제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렇다. 그리고 정책 수행에 대한 평가를 기업이 하게 한다.

둘째, 벤처 기업을 해 본 사업가를 벤처 투자자로 활용한다. 한 번도 벤처를 해 보지 않고 월급쟁이만 해 본 사람이 벤처에 투자를 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성공한 벤처 기업가들이 벤처 투자자로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벤처 산업에 대한 규제를 혁신적으로 바꾸어 나갈 국회에서의 입법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OECD에 의하면 2003년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구 상의 모든 상거래의 약 15%에 이를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의 경쟁력은 이렇게 규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앞날이 없다. 급속히 변하는 향후 인터넷 정보 사회에서 살아 남기 위해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의원 입법을 통해 온갖 규제법을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벤처를 도와 주기 바란다면 규제를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 규제를 제거하면 기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파워를 상실한다는 관료 사회의 인식이 혁신되지 않는 한 기득권을 가진 정부 관료가 스스로 가진 권한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의 나쁜 관행이 변혁의 의지 없이 저질로 변하지 않는다고 할 때 향후 세계 지식 정보 사회에서 나라의 미래가 전문화된 벤처 정신에 있다면 벤처 기업가를 규제를 타파하는 주도 세력으로 키워야 한다. 정부는 규제를 타파하는 목표를 정하였으면 이의 실행을 평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세상에 노력없이 되는 일 없다. 우리 정부와 기업인이 진정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벤처가 살 수 있다.

신 흥 식



- 1974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응용수학(학사)
- 1983 Pennsylvania주립대학 컴퓨터과학(석사)
- 1989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컴퓨터과학(박사)
- 1989~1991 GTE Labs(미국 Boston 소재) Semor MTS
- 1993~1996 동양SHIL(동양그룹) 상무이사
- 1996~1997 등부정보시스템(동부그룹) 대표이사

현재 한국전자인증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테크 대표이사
E-mail:shinn@syntech.co.kr